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설 문 원 (Moon-Won Seol)**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장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x 등이 주창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과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루어진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여 로컬리티 기록화의 방향과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로컬리티 기록화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공간 기반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spanDoc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기록화의 원칙, 구조,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로컬리티 기록화의 결과가 디지털 환경에서 축적되고 활용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It begins with analysing the changes of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locality documentation through literature surveys. Based on the analysis, a new paradigm of locality documentation is suggested in digital environment. It then suggests space-based documentation model, i.e., 'spanDoc Model (SPA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Model)' which represent the new paradigm. The model focuses on planning the framework of use and accumulation of locality documentation.

키워드: 공간 기록화, 장소 기록화, 기록화 모형, 기록콘텐츠, 로컬리티 기록화, 기록화 전략
Space Documentation, Place Documentation, Documentation Model, Records Contents,
Locality Documentation, Documentation Strategy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eol@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12년 11월 29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2월 8일

1. 머리말

1980년대에 구미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제창된 이후 이 전략을 적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을 전후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기록관리 연구의 지평이 공공기록관리에서 민간기록관리로 확장되면서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관리와는 다른 방법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와 과도한 비용 및 시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능동적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추구하는 기본 철학은 현대에 들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기록문화가 척박한 우리의 기록관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방 영구기록관리기관이 부재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의 기록을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설문원 2010).

이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기록의 능동적 평가·선별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기록 및 정보 환경을 고려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탈근대적 시각에서 볼 때 로컬리티는 지역의 다원적이며 변화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활동 주체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

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 및 생산”(설문원 2011)이 되어야 하며, 이들 “주체의 기억과 역사를 남기는 일”(설문원 2012a)이 되어야 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지역에 적용한 모형 연구로는 미국의 기록학자 Richard Cox(1996)의 『로컬리티의 기록화(Documenting Localities)』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90년대 초기 뉴욕 북부지역의 기록화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정립된 실무적 방법론과 이론이 담겨 있으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기본적으로 다기관 협력적 수집 방법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도 수집 중심의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환경에서는 협력적 ‘수집’보다는 협력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화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절차도 중요하지만 기록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像)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21세기 우리나라의 지방기록관리 현실을 감안한 기록화 모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Cox 등이 주창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한계를 방법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기록화의 방향성, 개념과 구조, 추진 방식 측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결과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축적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는 모형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론의 전개와 변화

2.1 기록화 개념과 절차

2.1.1 기록화의 개념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제안한 Cox는 ‘기록화’를 대상의 재현을 위한 ‘기록의 수집 및 생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관 간의 협력적 기록 수집과 생산을 통한 지역사 보존을 전략의 실무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화를 기록의 수집과 생산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에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적으로 수집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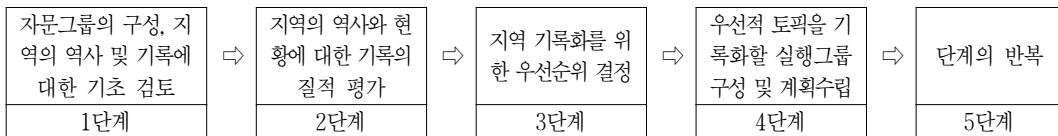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록화의 개념에 수집과 생산뿐 아니라 분산 소장된 기록들의 네트워크까지 포함하고 있다. 설문원(2010)은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으로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제시하였는데, ‘기록화’를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

서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추구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지역 내 소장기관들의 협력적 기록화”를 주요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여, 기관 간 협력 모형의 틀과 완전히 결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설문원(2012a)은 후속 연구에서 로컬리티 기록화의 초점을 “수집”이 아니라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일련의 재현체계를 통해 보여주는 ‘재맥락화’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¹⁾

2.1.2 기록화 절차

Cox가 제안한 모형은 지역의 기록을 여러 기관이 협력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은 기록화 전략 계획서의 작성과 자문그룹의 운영을 골자로 하며, 절차를 5단계로 나누고 있다(〈그림 1〉 참조). 1단계는 지역사 전반의 분석, 2단계는 지역 기록에 대한 기초 조사, 3, 4단계는 기록화를 실시할 토픽의 결정과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5단계는 피드백 및 반복적 수행이다(Cox 1996, 120-128).

특히 4단계에서는 토픽별로 기록화 전략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주제 영역, △지리적 범위, △기록화 실행그룹



〈그림 1〉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 모형

1) 재맥락화는 여러 출처에서 모은 기록을 의도된 체계에 따라 재배치 및 재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맥락화는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분산적으로 소장된 기록을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모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설문원 2012a).

(분석과 초안 작성에 참여할 핵심 조직과 사람), △ 이미 작성된 정보의 설명(데이터베이스, 서베이와 안내서, 회의 및 토의자료, 특별 분석자료, 기타 정보원), △ 필요하지만 구하지 못한 정보, △ 주요 결과의 요약(기록화 실무그룹이 합의한 고려사항 리스트 정리), △ 실무활동의 제안, △ 전략서 작성일자, △ 다음 개정일자 등이다.

이 모형의 문제점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와 2단계에서 수행할 작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애매하다는 점이다. 지역사의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기록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던 미국 북부 뉴욕지역 및 밀워키 대도시 기록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 문제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Malkimus 2008). 2단계의 작업이 남아있는 기록에 대한 질적 평가인데,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정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가 대상이 되는 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1단계와 2단계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용성이 낮다. 구체적인 기록화 사업은 3단계와 4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결정이나 계획수립 단계 모두 실무에 참조할 수 있는 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따라서 기록화 할 대상을 우선 선정한 후에 기록조사 및 계획수립이 이어지는 순서로 절차를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기록화 모형과 관련해서는 권순명, 이승휘(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내부 주체의 관점을 중시하는 기록화를 강조하며, 지역 기록을 선별, 수집하는 데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문단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기록화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원화 사회에서 기록화 전략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기보다는 내부 주체의 관점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 기록화 영역과 대상

2.2.1 기록화 영역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은 지역사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특정 시기별, 그리고 토픽별(△ 농업, △ 예술과 건축, △ 사업·산업·제조업, △ 교육, △ 환경문제·자연자원, △ 노동, △ 의료·보건, △ 국방, △ 정치·정부·법, △ 인구, △ 레크리에이션·여가, △ 종교, △ 과학·기술, △ 사회조직·커뮤니케이션 △ 교통·커뮤니케이션 등)로 지역 기록화의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권순명, 이승휘(2009)의 경우, 지역 기록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공동체, 종교, 역사적 발전, 사회상, 경제, 행정자치, 교육, 지리풍경, 건물 등 넓은 영역에 걸친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수집을 제안하고 있어서 Cox의 포괄적 전략을 계승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의 모든 영역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그려 나간다면,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문원(2011)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지역사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기록화 영역으로 잡아

야 하지만 그러한 망라적 기록화 전략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던 사례들도 있고, 특히 “지역의 도서관이나 지방기록관리기관에서의 지역사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환경”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록화의 목적에 맞게 영역을 미리 정하고, 각 영역 내에서 대상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화를 진행해야 하며, 공간이나 장소를 우선적인 영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컬리티가 특정 공간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장소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로컬리티 탐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화 대상을 설정한 후 인물이나 사건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목적과 관점에 따라 영역을 달리 설정할 수 있지만 공간/장소와 같은 영역의 기록화 전략과 문화, 산업 정책 등과 같은 주제 영역별 기록화 전략은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영역에 맞는 모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2.2 기록화 대상 및 기록의 선정기준

기록화 전략은 방법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복원한다는 관점에서 재조명을 받아 왔다(Malikiemus 2008; Johnson 2008). 특히 기록된 과거와 경험한 과거의 불일치, 혹은 격차를 보일 때 기록화 전략은 일종의 기억 투쟁의 성격²⁾을 띠게 된다(Hedstrom 2010).

탈근대의 관점에서 보면,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설문원 2011).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중요하다고 확정짓기 어려우며, 기록화를 추진하는 주체와 목표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이를 수 있는 열린 방식의 기록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특정 주제나 사건 등에 대한 기록화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행위의 직접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록뿐 아니라 많은 2차 자료와 참고 자료들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미영(2009)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해서 1차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2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에서는 1995년 대지진이 일어난 일본 효고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해 및 재해 경험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효고현의 기록화 사업에서는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메모, 양케이트 원표(元票) 등을 포함한 1차 자료(原資料) 뿐만 아니라 도서, 간행물, 신문과 같은 2차 자료도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 기관에서의 수집활동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역사와 기억의 연관성 문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급작스런 권력의 이동, 사회적인 격변기, 억압 제도의 도입과 타도 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홀로코스트,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남아메리카의 억압과 해방 운동,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투쟁 등은 주요한 역사적 관심사이자 기억의 재구성 프로젝트”이다(Hedstrom, Margaret 2010).

2.3 서비스 및 참여와 협력

과거 로컬리티 기록화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은 각 소장기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화'는 수집뿐 아니라 활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컬리티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다.

- 소장기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기록자원에 대한 통합검색과 지역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OAC와 Calisphere)
- 장소를 경험한 주체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기록화: 영국 웨일즈(People's Collection Wales)
- 기록을 계획된 맥락 구조 속에서 제공: 남북전쟁기 미국 버지니아 주의 오거스타 카운티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프랭클린 카운티 (Valley of Shadow 아카이브)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소장기관,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차 자료(공예품, 필사본, 개인문서, 역사 사진 등)에 대한 목록 및 기술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로서, 분산 소장된 기록에 대한 통합 검색을 지원하고, 원문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한다.³⁾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은 OAC와 함께 지역사 교육을 위한 기록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Calisphere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Calisphere는 지역 내 기관들이 소장한 사진, 문서, 예술작품, 기타 역사자료 중 선별된 디지털 원문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두 사이트 모두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록물 소장기관들로부터 목록 및 기술정보, 디지털화된 기록들을 제공받아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로서, 로컬리티 기록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놓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추진 주체가 주립아카이브가 아니라 대학도서관이며,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영국 웨일즈 지역 내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의 문화유산 기관들이 소장한 자료를 온라인 환경에서 수집, 해석, 배포,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기관이 소장한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사학회나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컬렉션을 만들고, 관련 있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설문원 2012b에서 재인용). 아직 개발 중이라 전체적인 기록화가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GPS 기술을 이용하여 웨일즈 풍경을 여행하고 그 감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형 기록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Tedd 2011).

미국의 Valley of Shadow 사이트는 특정 시기 그 지역의 기록들을 미리 분석된 맥락의 틀

3) <<http://www.oac.cdlib.org/>> 참조.

4)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institutions.html>>.

속에서 잘 짜여진 스토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례이다. 이는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의 전후에 이루어진 두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록화를 시도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로컬리티의 기록화가 전문적인 역사 연구와 함께 수행되었으며, 공공기록은 물론 다양한 개인기록, 당시 통계와 지역신문은 물론 많은 참고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설문원 2012b의 재인용).

Cox 등의 모형에는 기록화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서비스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수집 중심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단순히 수집을 위한 기록화는 한계가 있으며, 활용 중심의 참여형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화의 편익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소장기관들이 협력하여 통합적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이용하여 중요한 토픽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

공하는 방법은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한 기록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 새로운 패러다임

2.4.1 패러다임의 전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내용과 구현 방식은 많은 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기록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앞서 살펴본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변화를 기록화의 방향, 구조, 유지 및 활용방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접근법의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활용성: 수집 중심의 기록화 전략에서 현

<표 1> 로컬리티 기록화 패러다임의 전환

범주	구성요소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	기록화의 목표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측면이 선별된 기록을 통해 적절하게 재현되고, 그러한 기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Cox 1996, 112)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설문원 2011)
	기록화의 우선순위	지역사의 전반에 대한 분석(전문가 및 지역 주민)에 기초하여 우선 기록화 대상 선정	기록을 남기지 못했거나 유실 우려가 높은 집단, 장소, 주제에 관한 기록화 우선
구조	기록화의 개념	대상에 관한 기록의 협력적 수집, 생산	대상의 재현을 위한 기록정보자원의 네트워킹화(기록을 활용한 대상의 재현: 수집, 생산, 네트워킹, 콘텐츠 설계 포함)
	맥락화	출처주의에 따른 정리와 기술	정리·기술 및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확보대상 기록	지역사 및 지역민 활동의 증거로서의 기록	재현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자원 전체(△ 다양한 형식과 매체의 기록, △ 통계데이터, 공간 데이터, 지도,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 △ 단행본, 논문, 영상물 등의 2차 자료, △ 웹 정보원)
유지/활용	기록화의 진행 방식	맥락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구조에 따라 기록화 실시(격자형)	다양한 출처(주체), 토픽, 장소 등에 관한 기록(컬렉션 혹은 콘텐츠를)을 추가하는 방식(벌집형)
	협력과 참여	소장기관	소장기관, 다수의 이용자 및 기록생산자
	기록화 결과의 활용	소장기관에 접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접근

재적 활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과거 역사에 대한 현재의 해석도 중시한다.

- 재현성: 증거로서 기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의 재현을 고려한 전략을 수용한다.
- 개방성: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가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기록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의 기억과 경험도 기록으로 포착하도록 한다.
- 포용성: 미리 계획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기록화 대상을 계속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록들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 다양성: 기억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기록화 전략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핵심적 특징을 다시 요약하면 △참여와 다원화, △연계와 통합, △서비스 지향성이다. 즉,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기억을 존중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기록화를 지향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의 통합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민/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등 기록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2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국내 지방기록관리의 현실에서 로컬리티 기록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 기록관리의 제도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프로젝트 방식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이며, 이때 수집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킹과 활용 중심의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지방기록물의 관리 및 수집 주체가 미약하며,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⁵⁾ 처음부터 대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접근법은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집 중심의 기록화를 넘어 지역문화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기록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리 현실에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다종의 기록소장기관들이 협력적 수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활용 및 연계서비스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지방의 기록은 매우 분산적으로 잔존하고, 서지적 통제가 미흡하여 존재여부와 소장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때 참여를 통한 기록화 접근법은 기록의 품질 통제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포기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개방적 웹 환경에서 기록생산자 및 이용자로서 개인이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웹을 통한 자발적인 기록화 참여 가능성이 지역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

여섯째, 기록화 전략은 다양한 가치 존중과 다원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기록관리도 중요 정책이나 사업 중심의

5) 공공 및 민간기록을 포괄하여 지역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록관리체계가 시급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지방거점 대학의 도서관이나 기록관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록 보존을 넘어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아울러야 한다.

3.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3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로컬리티 기록화 추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네트워크 기반의 기록화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panDoc 모형(SPA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Model)'으로 명명하였다.

3.1 원칙

로컬리티 기록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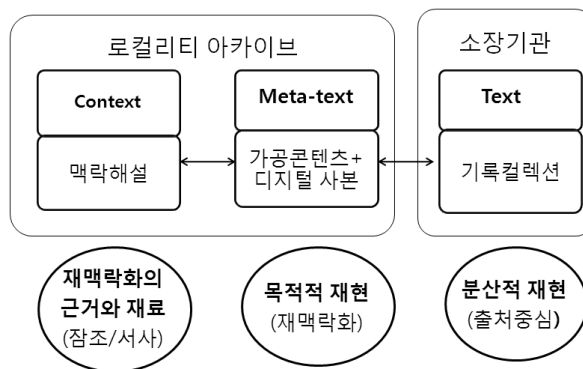
- 제1원칙: 선별된 대상의 재현을 위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정보자원을 네트워킹 한다.

- 제2원칙: 공간/장소 중심의 기록화 전략을 추진한다.
- 제3원칙: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한다.
- 제4원칙: 지역의 기록정보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구조를 선택한다.
- 제5원칙: 이용자서비스를 지향한다. 잠재적 이용자 및 후대를 위한 보존뿐 아니라 기록화의 편익을 많은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원칙: 다수의 개인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록화를 추진한다.

3.2 구조

3.2.1 네트워킹 방식의 기록화

spanDoc 모형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수집보다는 연계와 통합적 검색에 초점을 둔 기록화를 채택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기록(텍스트)은 소장기관에 있지만 로컬리



<그림 2> 네트워크형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

6) “대구의 재발견: 신택리지”(http://cafe.naver.com/walkingdaegu.cafe), “부산울산경남의 추억사진박물관”(http://cafe.daum.net/sajin7777)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티 아카이브에서는 목록과 기술, 기록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 디지털 사본 등을 일정한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목적적 재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록정보콘텐츠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정리한 맥락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과 역사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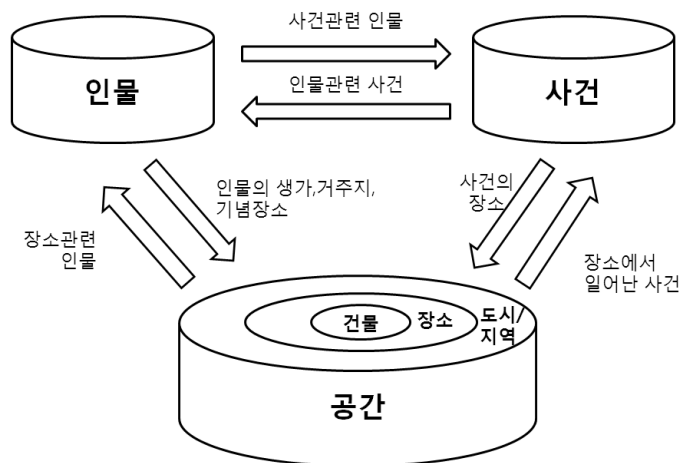
3.2.2 공간/장소를 거점으로 개방형 기록화 실시

이 모형에서는 공간/장소를 시작으로 기록화 대상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지역 내의 의미 있는 공간/장소를 선정하고, 그러한 공간/장소를 중심으로 “△지도나 사진 등으로 표현되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 △공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공동체)의 활동과 기억, △그러한 변화와 이력에 영향을 미친 정책과 사건”

등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설문원 2011). 공간은 건축물, 장소, 도시 및 지역으로 계층화될 수 있다. 인물/단체는 공간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사건/정책 역시 특정 공간과 관련된 사건이나 정책 등을 의미한다. 즉, 공간/장소에 기반한 기록화이지만 지역의 인물, 사건 등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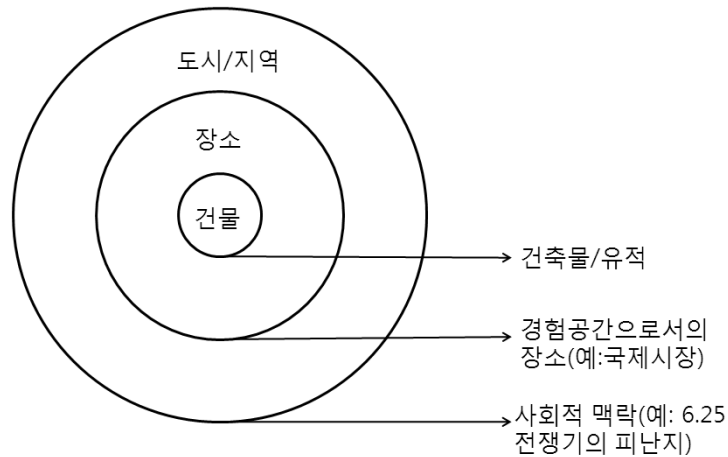
공간은 〈그림 4〉에서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장소, 터, 나아가 지역이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건물과 장소가 반드시 계층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장소 안의 건물이라도 장소와 건물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나 지역은 구체적인 기록화 대상이 아니라 건물이나 장소, 관련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장소성, 즉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의 역사와



〈그림 3〉 공간 로컬리티 기록화의 구성

7) 김한준(2010)이 소개한 유교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본 개념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4〉 공간의 계층

사람들의 장소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장소 기록화’는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소설가 김탁환은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장소 사전’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김탁환 2008). 가령, 16-17세기 개성의 풍경을 확인하기 위해, 개성의 여러 장소와 관련된 기행문, 신문기사, 문헌은 물론 공공 및 민간 기록을 알 수 있는 사전 혹은 디렉토리 정보는 매우 지역의 문화콘텐츠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 기록화는 열린 기록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소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당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비친 장소의 모습과 의미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기록화의 대상이 되는 공간/장소는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적절히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

간, △도시개발로 인한 공간의 변화가 미시적이어서 그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가까운 미래에 공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기록 구축 시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 △장소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다(유광흠 등 2008, 75-76).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하되 주민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이용자와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략은 다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간/장소와 관련 있는 사건이 파악되었을 경우, 사건의 전모를 기록을 통해 보여준다. 이때 기록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당대 사건이라면 특히 웹 정보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오명진 2012). 지역과 관련하여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개인기록과 함께 구술기록의 수집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

3.2.3 다양한 기록과 자료의 획득

남겨진 기록 간의 차이, 기록과 기억의 간극을 고려할 때, 지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출처, 다양한 형식의 1, 2차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설문원 2012b). 특히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에서 “지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설문원 2012a).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 네트워크 할 자료에는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고정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기록과 개인기록을 포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공간을 기록화하려면 공간기록의 확보가 중요하다. 공간기록은 “물리적 공간상의 참조점을 가지는 기록물”을 일컫는다(유광흠 2008, 14).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공간기록에는 지도와 도면, 사진, 이밖에 장소 경험에 관한 기록(구술, 디지털사진, 웹 게시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기록은 최신의 것뿐 아니라 시계열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⁸⁾ 로컬리티 연구에서는 특히 지역 언론자료의 이용이 중요한데, 남겨진 민간기록의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집합적 기억의 일부로서 당시의 지역신문기사 등은 의미 있는 사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단행본이나 논문 등과 같은 2차 자료는 맥락 정보의 기술과 콘텐츠 구축을 위해 분석·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관보, 엽서, 풍습이나 행사 사진 등도 중요한 1차 자료의 유형이다. 한편 기록화 대상으로는 개인의 ‘기억’과 ‘집단기억’

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술기록, 각종 언론매체, 예술품,⁹⁾ 문학작품 등도 수집하거나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공간의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송유림, 동정근 2008).

3.2.4 기록정보콘텐츠의 독립성과 연계성 유지

Cox 등이 개진한 기록화 모형은 사전에 지역사 분석을 통해 기록이 있어야 할 영역을 조사하고, 각 영역별로 남겨진 기록과의 격차 분석을 함으로써 결락된 부분을 확인한 후 이를 집중 수집하는 방식이다(〈표 2〉의 격자형).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면, 다양한 주제, 주체의 기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해야 하며, 각 단위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호 연계된다.(〈표 2〉의 벌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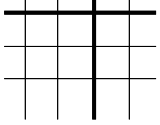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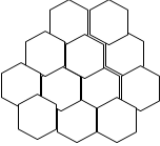
3.2.5 서비스 강화 및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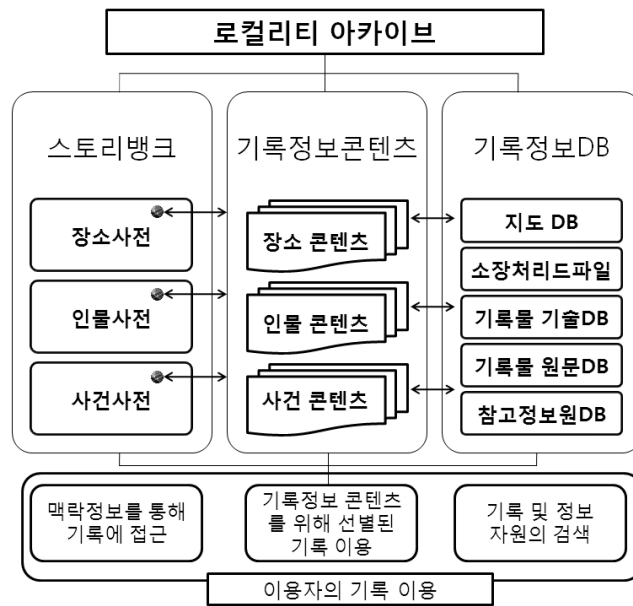
spanDoc모형은 현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향한다. 잠재적 이용자 및 후대를 위한 보존뿐 아니라 당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림 5〉는 기록화의 내용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을 설계해 본 것이다. 기록 및 메타데이터, 가공된 기록정보콘텐츠, 맥락정보와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뱅크가 연계되어 구

8) Duranti 등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인 InterPares 2의 결과보고서에서 GIS 기록의 수집과 보존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리 및 공간데이터의 연계와 보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 예술매체에 투영된 정서적 기억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Valley of Shadow 아카이브에서는 지역을 소재로 한 풍경화, 지역작가의 작품 등도 수집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 기록화의 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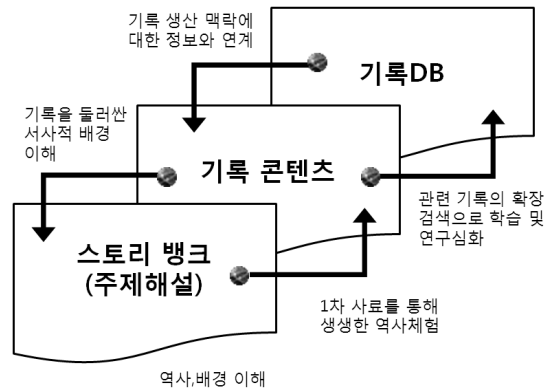
	기록화 방식	설 명
Cox의 모형 <격자형>		각 선들은 지역 역사의 영역과 활동을 의미하고, 시간축과 만나는 각 교점은 수집해야 할 기록의 영역을 의미
spanDoc 모형 <벌집형>		다양한 주제, 다양한 주제의 기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는 구조. 각 단위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한편 상호 연계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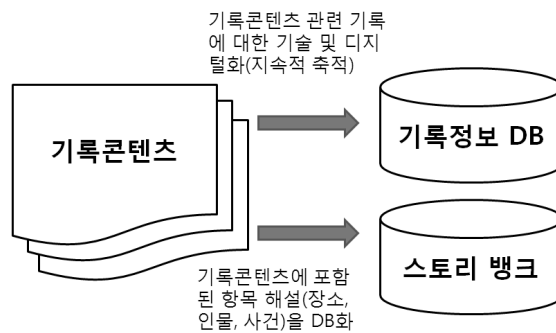
〈그림 5〉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성요소

축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가령, 장소 사전에는 건물, 유적지, 기타 기념할 만한 장소에 대한 백과사전식의 설명 자료가 포함되며, 스토리뱅크에 이야기 사전이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내 소장기관에 대한 리드 파일, 공간지도 및 연표 데이터베이스도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림 6〉에서는 기록정보 개체들이 연계되어 활용되는 구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정보들은 〈그림 7〉에서와 같이 각각의 DB로 축적되어 로컬의 지식과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 기록정보 개체의 연계 활용 구조



<그림 7> 기록정보콘텐츠의 지속적 축적 구조

3.3 절차

로컬리티 기록화의 절차는 1단계 대상의 선정, 2단계 전략서의 작성, 3단계 전략의 실행 등 3단계로 구성하였다. 전략의 실행 단계는 다시 세분화된 절차로 구분하였다.

3.3.1 기록화 대상의 선정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이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우선적으로 기록화 할 대상(주제와 공간)을 정하는 것이다. 기록화 대상의 선정을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Cox의 모형에서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이 있고, 전문가 및 일반인, 내부인과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기록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설정한 장단기 목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화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향토문화대전 사업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역사문화대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부산의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양홍숙 2010)는 부산의 로컬리티 기록화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부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장소, 시설 포함), 사건, 인물(단체 포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항목에 대한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역사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 부산 지역은 타 지역보다 가장 차별화된 역사적 경험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부산은 100여 년 전에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그러나 1876년 근대 개항으로 인해 일본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가지 구축은 불가피하였다. 개항장은 전관거류지로 재구성되고 근대 학교, 일본불교 등 신종교 유입, 외국인 선교사 입국, 인재 육성, 종교 활동이 행해지고 여러 나라의 조계지가 들어섰다. 이 개항장이 부산부가 되고 이후 부산시가 되었다. 이곳에는 근대적 공공시설(부산우체국)이 들어서고, 각종 항만 시설(세관)과 근대교통수단(관부연락선, 경부선, 부산역), 상업시설(부산공설시장), 산업시설(일본경질도기), 금융시설이 들어섰다. 이로써 부산시는 근대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구 도심인 동래부는 부산부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도시의 근대화 편입된 부산의 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탈에 내몰렸다. 저임금과 위험한 공사현장에 노출되어, 민족 혹은 계급적인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1945년 귀환동포의 귀국,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영도다리, 국제시장) 유입이 폭증하면서 수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항일운동(백산상회), 노동운동(부산부두총파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중운동은 70년, 80년대 분

마항쟁과 87년 민주화운동(박종철, 민주공원)을 배태하면서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양홍숙 2010).

선정방식은 일단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공간/장소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역의 의미 있는 공간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부산의 지역사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한일관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이때 기록화의 대상은 한일관계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산의 공간/장소들로 설정될 것이다. 한편 그 지역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을 정하는 접근법도 병행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사전에 기록화의 방향과 선정의 원칙을 정한 후에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을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록화 대상(주제와 공간)을 선정하는 절차에는 전문가 및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더 구체적인 재현단위를 정할 때에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참여를 통해 기록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기록화 항목을 ‘부산항’으로 설정하였지만, 하위의 재현단위는 ‘19세기 개항장’, ‘항만시설’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특별한 경험 공간으로서 의미가 하나의 재현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2 전략서의 작성

기록화 대상을 정한 후에는 각각의 기록화 전략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략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제의 특징과 기록화 방향, (2) 공간/장소의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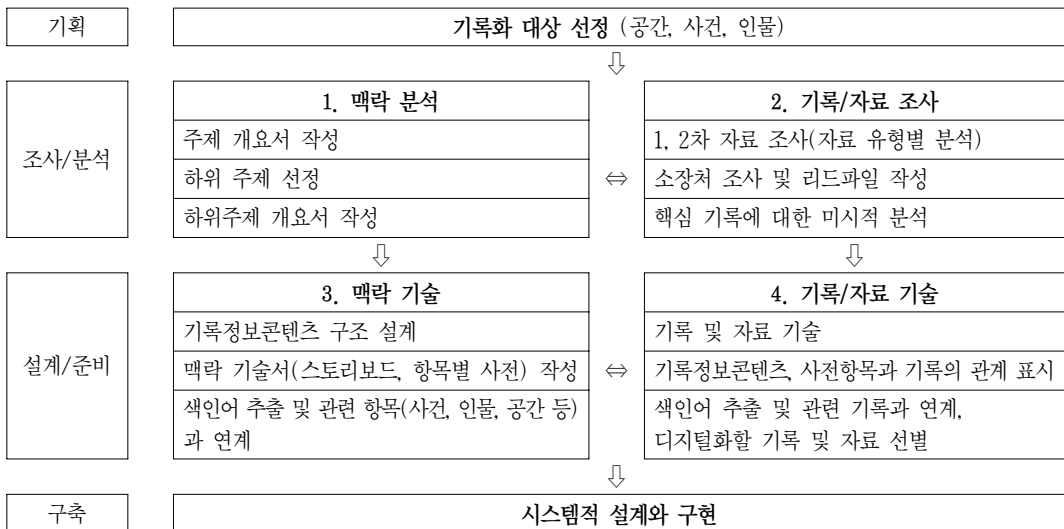
징과 기록화 범주, (3) 현재 기록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기록화가 끝난 대상 중 관련 항목(공간/장소, 인물, 사건 등), (4) 기록화 실행그룹, (5) 참고자료, (6) 전략서 작성일자 및 작성자 등이다. 이는 Cox 모형에 나타난 전략서를 참조하되,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를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3.3.3 전략의 실행

대상이 정해지고 전략서가 마련되면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단계는 <그림 5>에서 제시한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정보 및 기록요소들을 획득하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은 <그림 6>과 <그림 7>에서와 같이 기록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추진된다. 그 과정은 <그림 8>과 같이 (1) 맥락분석, (2) 기록조사 및 선별, (3) 구조 설계와 맥락 기술, (4) 기록 기술과 각종 목록 작성, (5) 시스템적 설계와 구현으로 이루어진다.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화 대상에 대한 맥락 연구를 통해 기록콘텐츠의 구조를 세운다. 이는 기록콘텐츠 설계의 밑그림이 될 뿐만 아니라 확보할 기록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맥락분석의 결과는 개요서로 작성하여, 콘텐츠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는 관련된 기록 및 자료의 유형을 파악하고, 수집 대상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1934년 부산지역에 개통된 '동해남부선'을 기록화 할 경우, 조사할 자료의 유형에는 동해남부선 각역에서 생산한 기록(역사(驛史), 운수운전 설비카드, 역세조사서, 열차시각표 및 각종 공고), 통계류(조선총독부 철도국, 교통부, 철도청, 코레일 등 동해남부선 철도를 관리한 기관에서 매년 생산한 연간 통계연보), 관보 및 공보류(조선총독부관보 및 대한민국관보, 철도청 공보), 지역신문, 관련 논문 및 단행본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웹 정보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일



<그림 8>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설계와 데이터 구축 과정

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진을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인 '부산울산경남의 추억사진박물관 카페'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확보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기록콘텐츠의 구조를 설계한다. 이에 따라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사진 DB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항목별 해설을 정리한다. 조사된 기록에 대한 기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콘텐츠의 항목과 연계하는 한편, 핵심 기록에 대해서는 해설을 추가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한다.

콘텐츠를 설계할 때 이미 구축된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관보나 신문 등과 같이 외부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웹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인터를 제공하여 링크되도록 한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여 이용자 혹은 기록생산자가 자신들의 기록을 올리거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한다.

이 모형의 특징은 기록의 수집, 기록콘텐츠의 개발,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에 있다.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구축해야 할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표 3>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3>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유형

DB	설 명
소장처 리드 파일	관련 기록 소장자(기관) 기술 DB
기록 기술서	관련 기록 유형별 기술 DB
기록원문	디지털화 기록
사진	장소, 인물, 사건 해설 DB
이야기 은행	지역 및 공간 관련하여 수집한 이야기 목록 및 이야기 전문 DB
참고정보원	문헌, 보고서, 통계, 지도, 언론 등 2차 자료 기술 DB

4. 맺음말

아직 우리사회는 지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지방의 기록관리는 아직도 정책의 변방에 있으며, 특히 지역의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 한쪽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지역의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의 기록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확충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21세기의 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참여적인 기록화가 필요하다. 디지털환경에서의 기록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기록의 연계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로컬리티 기록화는 우리 사회에 탈근대적, 다양상의 가치를 확산하고, 로컬지식과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며, 지역정체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지방 현실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고, 특히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수집이 아니라 접근 중심의 네트워크형 기록화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구체적인 모형으로 구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형은 실제 적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김한준. 2010. 문화콘텐츠와 정보기술의 결합. 『제2회 SSK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단 컬로퀴엄 자료집』(2010. 12. 16), 17-36.
- 권순명. 2008.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 기록정보전문대학원, 기록관리트랙.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탁환. 2008. 디지털시대 전통 기록과 스토리텔링 연구. 『국학연구』, 12: 291-312.
- 류정아. 2006.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8: 39-57. 인문콘텐츠학회.
- 박경환. 2008.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국학연구』, 12: 313-341. 한국국학진흥원.
- 송유림, 동정근. 2008. 기억을 통한 공공공간의 내러티브화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28(1)(계획계).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a.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 양홍숙. 2010. 부산 로컬리티 탐구: 『디지털부산 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K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로퀴엄 자료집』(2010. 11. 19), 21-37.
- 오명진. 2012.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유광흠 등. 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미영. 2009. 재해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1: 85-116.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회의자료』.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 및 역사체험 콘텐츠 구축’ 보고서』.
- Calisphere [online]. [cited 2012.11.8].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institutions/>>.
- Cox, Richard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 London: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p. 67.
- Hedstrom, Margaret. 2010.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

- phor, less than an analogy.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Ch. 8(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Santa barbara : Libraries Unlimited): 163-180.
- Johnson, Elizabeth Snowden. 2008.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71: 190-202.
- Malkimus, Doris J.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71: 384-409.
-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online]. [cited 2012.11.8].
<<http://www.oac.cdlib.org/>>.
- Tedd, Lucy A. 2011. "People's Collection Wales: Online access to the heritage of Wales from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Program: 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45(3): 333-345.

